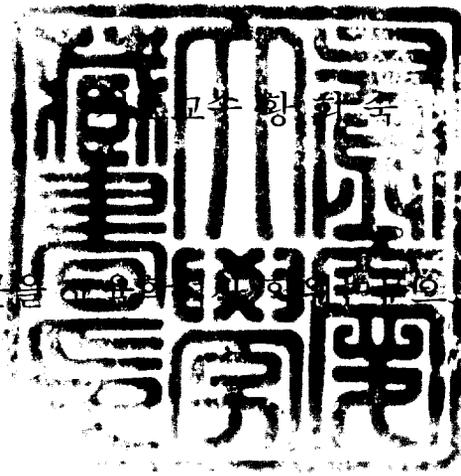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문종길

문종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2월 일

주 심 철학박사 이희영



위 원 철학박사 이정화



위 원 교육학박사 황희숙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가. 부모의 양육효능감	5
나. 자아존중감	5
4.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8
1. 양육효능감	8
가. 양육효능감의 개념	8
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0
2. 자아존중감	14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14
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7
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23
가. 양육효능감과 양육 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23
나.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26
다.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28

III. 연구 방법	30
1. 연구 대상	30
2. 측정 도구	31
가. 부모의 양육 효능감	31
나. 자아존중감	33
3. 자료분석	34
IV. 결과 분석 및 논의	35
1. 결과 분석	35
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부와 모에 따른 차이	35
나.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	37
다.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39
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41
2. 논의	42
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부와 모에 따른 차이	43
나.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	44
다.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47
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50
V. 요약, 결론 및 제언	53
참 고 문 헌	56
부 록	63

표 목 차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성과 학년에 따른 분포	30
〈표 III-2〉 부모의 양육효능감 질문지의 하위영역 문항번호	32
〈표 III-3〉 긍정적 문항, 부정적 문항의 문항번호 및 신뢰도 계수 ..	33
〈표 IV-1〉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기술 통계량 ..	35
〈표 IV-2〉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	36
〈표 IV-3〉 부와 모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37
〈표 IV-4〉 아동의 성과 학년과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	38
〈표 IV-5〉 아동의 성과 학년과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관계	38
〈표 IV-6〉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술 통계량	39
〈표 IV-7〉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40
〈표 IV-8〉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41
〈표 IV-9〉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42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Esteem

Moon, Jong Gil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esteem.

Following are the established ques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is there difference of parents' parenting self efficacy according to father and mother?

Second, is there difference of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and sex?

Third, is there difference of children'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and sex?

Fourth, is ther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esteem?

A total of 259 children and their par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ame from fifth-graders of one elementary school and eighth-graders of one middle school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Data were

gathered with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and Self-Esteem Inventory for children. Parenting Self-efficacy were measured using the Parenting Self efficacy scale by Choe, Hyung Sung(2002). The scale was a Likert-type 5-point scale. The scale consisted of 38 items. Children's self esteem was measured using the Self Esteem Inventory (Coopersmith, 1990) translated by Yi Hyen Joo. The scale was a Likert-type 4-point scale. The scale consisted of 25 items. 2 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was not meaningful difference of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father and mother.

Second, there was not meaningful difference of parents' parenting self efficacy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and sex.

Third, there was not meaningful difference of children'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and sex.

Fourth, there were meaningful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conclusion, there was not meaningful difference of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father and mother, and there was not meaningful difference of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and sex. But, there were meaningful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esteem with the children's age and se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아동이 출생하면서 접하게 되는 최초의 학습장소이며,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1차적 요인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갖는 자녀 양육 태도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기현, 2000).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과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규명해왔다(김기현, 2000).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양육의 인지적 요인은 양육과 관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장시키고 양육에 대한 바른 평가와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부모 자신의 자아 형성과 양육 행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형성, 2002).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 중 하나로 연구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이라는 요인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Dumka et al., 1996; Johnston & Mash, 1989; 최형성, 2002에서 재인용).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최형성, 2002).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을 잘 이해하고 부모-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좀더 원활하게 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을 학대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한다(Coleman과 Karraker, 1997; Dumka, et al., 1996; Johnston과 Mash, 1989).

이처럼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조사 연구하는 것은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김은영, 2005; 김현미, 2004; 남덕임, 2004; 문태형, 2002; 서민정, 2002; 신숙재, 1997; 전은영, 2004; 정혜인, 2003; 안지영, 2001; 양정화, 2002; 예서현, 2004; 이승미, 2004; ; 최기원, 2004; 최형성, 2002)이 있으나,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정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요소이므로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서 인간 행동을 결정하고 설명, 예언하는데 도움을 주며, 개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차경숙, 1981).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하고 유지

해 가는 평가적인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평가는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며(박영애, 1995), 한 인간의 발달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Harter, 1983).

그런데 자아존중감의 틀은 가정에서, 특히 아동에게 그 누구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모, 그 가운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자신과 어머니와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형성된다(상미현, 1998). 자아존중감을 주제로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부모, 즉 어머니의 특성 및 양육 태도는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들로 잘 알려져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기는 예전보다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과 활동의 양이 많아지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이려는 특성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특성은 점차 부모와 아동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는 이로 인해 아동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본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는 아동의 중요한 사회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양육에 대한 가치와 태도, 행동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새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를 고찰하면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대상이 주로 어머니였으나 핵가족 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손화희, 1989; 차경숙, 1997)과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기는 예전보다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과 활동의 양이 많아지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이려는 특성이 강해지는 시기이며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가는 새로운 시기라는 점(김미란, 2002; 김정엽, 2003; 박명선, 2003; Bee, 1978; 상미현, 1998에서 재인용)을 고려하여 아동을 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

으로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는 일은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에게서 양육효능감이 부와 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과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에게서 양육효능감이 부와 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과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와 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4.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학년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은 Bandura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의 이론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Bandura(1977, 1982, 1997)는 자아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 조직능력과 실행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최형성, 2002에서 재인용).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또는 당면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기대를 가리킨다. 최형성(2002)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하고,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을 참고로 하여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이승미(2004)가 재구성하여 18문항으로 만든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학자들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용어로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중 어느 하나에만 비중을 둔 것과 두 요소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구분된다(김희화와 김정연, 1993). 평가는 대상의 유용성과 도구적 가치에 근거를 둔 인지적 반응인 반면, 감정은 평가의 크기나 방향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실제적 가치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수용, 만족, 선호하는 반응이다(Welles & Marwell, 1976). Coopersmith(1981)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로 정의하고,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Inventory)를 이현주(1990)가 아동용으로 번안한 것 가운데 전반적인 자아상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자아영역의 25문항만을 상미현(1998)이 부분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문지 조사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다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 중에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학년,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인만을 검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및 그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양육효능감

가. 양육효능감의 개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양육의 인지적 요인은 양육과 관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장시키고 양육에 대한 바른 평가와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부모 자신의 자아형성과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형성, 2002).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환경적 요인 이외에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 가운데 연구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의 하나로 양육효능감이라는 요인이 있다. 부모의 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Mondell과 Tyler(1981)는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대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한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한다. 즉, 부모가 아동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의 효능감에 영향을 받으며, 이것은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최형성(2002)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며, 아동발달과 양육행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양육효능감이란 대체로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1977, 1982)의 자아효능감(self efficacy)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Bandura는 자아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 조직능력과 실행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효능감이란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배합해야 하는 생성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인간의 삶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에 대한 기대에 의해 유도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자아효능감은 다양한 행동영역에서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환경에 따른 구체적인 영역에서 효능감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상황에 적용시킨 양육효능감도 이것의 한 예라 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Dorsey, Klein, Forehan와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은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Scheel과 Rieckman(1998)은 양육효능감이란 부모의 과업을 완수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아동을 잘 양육하며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Johnston & Mash, 1989),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Luster & Kain, 1987).

Teti와 Gelfand(1991)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어머니로서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즉, 양육효능감이란 부모로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역할 적응을 돕고 아동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양육 행동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서, 대체로 양육효능감은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한다.

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결혼만족도, 취업여부, 주변 사람의 사회적지지, 가정의 월 소득, 아동 양육경험, 교육 수준, 아동의 성, 아동의 학년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전은영(2004)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아의 어머니, 취업한 어머니, 학력이 높은 어머

니가 양육효능감이 높다. 또 만 4~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남덕임(2004)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인 학년, 가정의 월 소득, 직업 유형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육 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대졸이상의 어머니가 고등학교졸업이하의 어머니들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김향은(1999), 정옥분(1999), 정혜인(200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남덕임, 2004).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안지영(2001)에 따르면 취업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어머니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혜인(2003)은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가 취업을 한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역할만족도가 높다(조복희 · 현은강, 1994)는 보고도 있으나, 문혁준(1999)은 취업모가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남덕임, 2004에서 재인용).

한편 최기원(2004)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취업여부, 가정의 월 소득, 어머니의 교육 수준, 아동의 성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형성(2002)이 자신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대체로 높았다.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훈육능력의 평균점수가 다소 높았으며, 학습지도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형성의 척도를 사용하여 4-5세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연구한 문태형(2002)에 따르면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대체로 높았다. 문태형의 연구에서도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전문대이상을 졸업한 집단의 어머니들은 의사소통능력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하여 높게 보고하였고,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훈육능력에 대해 낮게 보고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최형성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여 만 4-5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승미(2004)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은 대체로 높으나 최형성의 연구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경제지위 상 집단의 어머니들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훈육능력, 학습지도능력에 대하여 대체로 높게 보고하였고, 전반적인 양육능력에 대해서 가장 낮게 보고하였다.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밝힌 국내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신숙재(1997)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2~3세의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안지영(2001)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최기원(2004)도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혜인(2003)은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전은영(2004)도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높다는 같은 결과를 보고 하였다.

한편 우희정과 이숙(1994)은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나

양육 행동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히고, 어머니 관련 변인의 영향력에 따라 여아의 경우 남아들보다 어머니 변인들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녀간의 간접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성에서는 남아보다 여아를 아동로 둔 부모의 역할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김향은 · 정옥분, 1999). 한편 문혁준(2001)은 유치원 아동을 둔 부모들의 훈육태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정종화(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현대에는 각 가정이 한 명 내지 두 명의 아동만을 가지는 핵가족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동의 성에 따라 훈육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 연구를 살펴볼 때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국내 논문은 거의 없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최형성의 연구(2002)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 수준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높은 편이었다. 또 최형성의 척도를 사용하여 4-5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문태형(2002)에 따르면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높은 편이었다. 한편 최형성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4, 5세 유아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연구한 이승미(2004)에 따르면 경제지위 상 집단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Floyd, Gillion과 Costinggan(1998)이 개발한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여 2~3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안지영(2001)은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1~4점의 가능한 범위 중 보통 정도라고 보고 있으며, 안지영의 척도를 사용하여 4~6세의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은영, 2005; 남덕임, 2004; 정혜인, 2003)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보통 정도를 보이고 있다. 또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5~7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김현미(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 평균은 보통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가지 문항으로 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변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신숙재(1997)의 연구와 신숙재의 척도를 사용하여 정신과적 자문과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특별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없는 초등학교 3~6학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서민정 외, 2002)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3~6학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서현(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 평균이 보통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평가는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 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며(박영애, 1995), 한 인간의 발달적 과정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Harter, 1983).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주제로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부모의 특성 및 양육 태도는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들로 잘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학자들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용어로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self-esteem) 개념과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자아존중(self-respect),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지각(self-perception), 자아지식(self-knowledge), 자아이해(self-understanding), 자아관(self-view), 자아상((self-image), 자아정체감(self-identity), 자아평가(self-evaluation), 자아수용(self-acceptance), 자아유능성(self-competence), 현상적 자아(phenomenal self), 자아효능감(self-efficacy), 자아가치감(self-worth) 등이 있다(노진아, 2003).

학자에 따라서는 이들 중 특정한 용어들 간에 차별화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Damon & Hart, 1982 ; Gecas et al., 1986) 대부분의 경우는 이론적 입장과 개인적 선호에 따라 어느 한 용어를 채택한 후에는 그 표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체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박영애, 1995).

Coopersmith(1981)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 즉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하고 유지해 가는 평가적인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중 어느 하나에만 비중을 둔 것과 두 요소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구분된다(김희화와 김경연, 1993). 평가는 대상의 유용성과 도구적 가치에 근거를 둔 인지적 반응인 반면, 감정은 평가의 크기나 방향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실제적 가치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수용, 만족, 선호하는 반응이다(Welles & Marwell, 1976).

먼저 평가적 요소에 비중을 둔 정의를 살펴보면 Gilmore(1974)는 자아존중감을 타인들과 비교에서 또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승인하는 정도로써 자아의 평가 차원으로 보았으며, Watkins(1978)와 Mirrels & McPeck(1977)은 자아존중감이란 한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일상의 대화나 성격 면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Newman(1983)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Rosenberg(1965)가 정의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여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롭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감정적 요소에 비중을 둔 정의를 살펴보면, James(1980), Elkind와 Weiner(1978)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이며, 자신에 하는 일에 대해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McCandless(1970)는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자신에 대한 선호성 여부와 가치 부여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모두를 고려한 정의를 살펴보면,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Welles와 Marwell(1976)은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적, 판단적, 감정적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1981)의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받아들여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자아존중감의 결정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지지를 특히 강조한다. 이때, 부모의 지지란 아동에게 부모가 함께 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된다는 확신을 주는 부모의 행동을 의미한다(Thomas, Gegas, Weigert & Rooney, 1974 ; Felson & Zielinski; 상미현, 1989에서 재인용).

부모의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반영적 평가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영적 평가의 과정에 따르면, 아동은 주위 인물들로부터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 경험이 중시되며,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그들의 평가와 관계의 질을 기초로 하여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하는 반영적 평가의 과정에서 볼 때,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개념으로 가족이 강조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그들의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영적 평가의 과정과 더불어 부모의 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귀인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자아귀인은 Bem(1972)에 의해 발달되고, Bandura(1977)에 의해 정교화된 개념으로서,

주위에 대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의거하여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동이 자신에 대한 지식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행위가 가져온 효과를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도출해 낸다는 것으로, 이것은 자신의 행동들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은 아동의 다양한 행동들에 대하여 다양한 자아개념을 이끌어내는 환경임과 동시에 부모의 반응은 아동에게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일깨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의 틀은 가정에서 특히, 아동에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자신과 부모와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는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리라 예측된다(상미현, 1998).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운데 성과 학년과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Harter(1982)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학업적 능력, 사회적 능력, 전반적인 자아가치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적 능력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본 Nottleman(1987)의 종단적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Stigler, Smith와 Mao(1985)의 5학년의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아 가치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Ford(198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높았다. 그러나 Eccle 등(1989), Wigfield 등(1991)은 6학년을 대상으로 2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를 각각 알아본 결과, 전반적인 자아, 신체능력, 수학능력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능력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Kurdek과 Krile(1982)의 3~8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미란, 2002).

한편, 이임현(1999)이 정리한 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Coleman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조사한 횡단적 연구에서 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아동의 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Brown, Fullkerson, Ware와 Voight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Sears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에 따르면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있는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동의 여성성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국내 연구의 결과에서도 어욱자(2003)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김치영(1987)과 이진화(1993)는 남아가 신체적 역량에서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의 자아개념을 조사한 심영현(1981)과 4~6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Wiseman과 Adams의 자아개념 그림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정숙자(1984)의 연구 결과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보였다. 그러나

3~5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민주(199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김미란, 2002).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자아존중감과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남아와 여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남아와 여아가 받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명희, 2004).

(2)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아를 정의하는 속성과 개념적으로 조직되는 정도는 개인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인지 발달과 사회화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지 발달 수준과 부모, 또래 등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가 개인의 자아기술(self-description)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아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 역시 개인의 발달 및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학년에 높아질수록 자신의 능력을 점점 더 정확히 판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미란, 2002).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시기를 Freud는 남근기, Erikson은 8개의 발달 단계 중에서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의 단계(1.5세~3.5세)로 보고 있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나 주로 1.5세~6세 사이에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복순(1999)은 유아기,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내적(정신적), 외적(신체적) 세계의 변화에 따라 심하게 동요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Harter(1988)와 그의 동료들은 4~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지각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학년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1, 2,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자아평가를 연구한 Benson과 Dweck(1986)의 결과에서도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평가는 덜

긍정적이 되며 영역간의 유사성이 적어져서 초등학교 후기에서는 영역간의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발달과 경험의 축적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로 아동기, 성인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혼란스럽고 변화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김미란, 2002).

Simmons와 Rosenberg(1973)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상을 연구한 결과 청소년 초기의 학생들이 다른 학년층에 비해서 더 우울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자존감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Harter(1982)의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하여 종단적 연구를 한 Nottleman(1987)은 사회적 수용에서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학년이 7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Wigfield 등(1991)의 연구에서도 6학년에서 7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사회적 능력과 전반적인 자아가치에서 감소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Eccle 등(1989)의 연구에서도 6학년에서 7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사회적 능력 및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서 감소를 보였다.

Piers와 Harris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상당히 높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보였다가 6학년에서 다소 낮아진 다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자아존중감을 1년 간격을 두고 측정하여 결과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밝힌 McCarthy와 Hore의 연구에서도 학년의 증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계속 증가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3세에서 23세까지

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O'Mally와 Bachman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한편 국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발달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정순지(1990)의 연구에서도 어린 아동일수록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교 3, 6,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진화(1993)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 전반적인 자아 가치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비교 연구한 전지환(2005)에 따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4학년 아동들이 6학년 아동들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희(2004)는 지금까지 제시된 아동의 학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없거나 차츰 낮아졌다가 중학교 1학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대부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에 낮은 지각을 나타내는 발달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는 보고된 것이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김미란(2002)에 따르면, 성과 학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은 청소년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 지각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년은 사회적 수용, 행동 품행을 제외한 모든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성과 학년의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가. 양육효능감과 양육 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먼저 양육 효능감과 비효율적인 훈육 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면, 김은영(2005)에 따르면 양육 효능감과 비효율적인 훈육 방식에는 부적의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양육 효능감은 과잉 반응적 훈육 방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양육 효능감이 낮을수록 더욱 통제적이며, 강압적인 훈육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한다. 양육 효능감이 방임적 허용을 제외한 자율적,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안지영, 2001)도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부모 역할 수행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 행동이 달라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양육 행동을 나타내었다는 연구 결과(문혁준, 1999)도 있다.

또 최기원(2004)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 효능감 및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며,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양육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며, 또한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많은 연구들에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과 더불어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를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서소정, 2004).

먼저 외국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10대에 어머니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이 된 후에 부모가 된 경우는 대체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서민정, 2002; 신숙재, 1997). Bugental과 그의 동료들(2002)은 부정적인 아동 양육 사건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기보다는 아동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아동의 고통에 의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역할에서의 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Cutrona & Troutman, 1986; 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Gross & Tucker, 1994; 김은영,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Cutrona & Troutman, 1986 ; Frank et al., 1986 ; Teti & Gelfand, 1991)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신숙재, 1997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미국 내 거주하는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저소득층 어머니와 영아들에게서도 나타나 어머니의 학년, 소득 수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서소정, 2004). 또한 126명의 1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세가 될 때까지 종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척도에서 부모 특성 관련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Gross et al., 1994, 김은영, 2005에서 재인용). 즉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들도 이러한 결과들과 유사한 보고를 하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낮은 수준이었

다(서민정, 2002; 신숙재, 1997; 양정화, 2002;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은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과 대체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남편과의 갈등과 아동와의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 영역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많으며 사회적 지원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낮다.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는 남아 어머니와 여아 어머니 모두 부모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으로 설명되고 있다.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부모효능감에 직접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왔다. 즉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남편과 주위 사람으로부터 양육과 관련된 지원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정화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유능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아동 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모로서의 불안/좌절감과 아동 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양정화, 2002). 이러한 결과는 신숙재(1997)의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에서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한다고 보겠다(양정화, 2002).

김은영(2005)에 따르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낮은 양육효능감을 나타냈다. 즉,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고통이 많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낮아지고,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지각하였다.

한편 서민정(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가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ADHD 아동의 어머니 집단은 일반 아동 어머니 집단에 비해 부모로서의 효능감 점

수가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숙재(1997)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에게 아동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우울, 불안과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 문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과도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세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혜인(2003)은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집단의 유아와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 집단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 어머니들의 아동보다 낮은 집단 어머니들의 아동이 일상적으로 더 많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양육능력에 자신감을 잃기 쉬우며,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며,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은영(2005)은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훈육방식의 관계에 관하여 양육 효능감이 과잉 반응적 훈육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과잉 반응적 훈육 방식뿐만 아니라 방임적 훈육이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수용, 온정 및 관심을 나타내는 태도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거부, 통제 및 냉담을 나타내는 태도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Hurlock, 1950; Mussen, 1979). Rosenberg(1965)에 의하면 전공분야에서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긴밀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계를 가진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고 한다. 부모의 흥미와 관심의 정도가 자아존중감에 의미 있게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Baumrind(1972)는 학령전기 동안 유능하다고 판정된 아동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그들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 동시에 통제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유능한 아동이란 독립성, 자아신뢰, 활동성, 자아통제, 탐색, 우호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인데 이러한 행동 특징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행동 특징과 밀접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선자, 2000; 차경숙, 1997).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율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장도현(1985)은 부모의 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명자(1978)과 김영현(1981)의 연구에서 역시 부모의 태도가 자율적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기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년기 이후 그 아동의 성격 유형과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어서 아동에게 온정적·헌신적이며 같이 활동에 참여해 주고 칭찬은 아끼지 않을수록 아동은 지도적이고 협동적인 인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한편 김현주, 손은경, 신혜영(2003)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수용적으로 대하고 온정과 애정을 쏟으며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친밀성을 형성하는 부모의 아동들이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높다. 둘째, 아동의 또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낮다. 셋째,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온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자란 아동이 통제적 양육 태도에서 자란 아동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부모가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아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즉,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형성되고 부모의 태도가 통제적이고 거부적이고 권위적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게 형성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란영(1996)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의 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김미란(198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남자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 반면에 여자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의해 부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였다.

다.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 각각의 변인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러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었다.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은영(2004)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어머니의 유아는 낮은 어머니의 유아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은영(2005)은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훈육방식의 관계에 관하여 양육 효능감이 과잉 반응적 훈육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과잉 반응적 훈육 방식 뿐만 아니라 방임적 훈육이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관련 연구를 더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서민정, 2002; 신숙재, 1997; 양정화, 2001; 최형성, 2002),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양정화, 2001)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훈육방식의 관계에 관하여 양육 효능감이 과잉 반응적 훈육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중류층 지역인 남구에 소재한 남녀합반인 D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과 역시 남녀합반인 D중학교 2학년 4개 학급 학생 259명과 그 부모 각각 2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방법은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는 중학교 1개교와 같은 지역의 초등학교 1개교를 임의로 표집하였다.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성과 학년에 따른 분포

		남	여	합계
학생	초등학생	64	72	136
	중학생	54	69	123
	합계	118	141	259
부모	초등학생의 부	136		272
	초등학생의 모		136	
	중학생의 부	123		246
	중학생의 모		123	
	합계	259	259	518

조사 실시 기간은 2005년 3월 29일부터 2005년 4월 4일까지였으며,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나 기재가 누락된 것, 편부, 편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용 설문지 각각 259부와 아동용 설문지 25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 성과 학년에 따른 분포는 <표 III 1>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묻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부모들에게 양육효능감을 묻는 질문은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을 참고로 하여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이승미(2004)가 재구성하여 18문항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내용은 전반적인 양육 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그리고 훈육 능력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이승미는 38개로 된 문항을 예비조사 결과 문항이 많다는 어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의 수월한 답변을 위해 문항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형성, 정옥분(2001)이 문항 개발과정에서 요인 분석 결과 해당 요인과의 요인 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킨 것을 확대하여 요인 부하량이 .50 이하인 문항을 모두 제외시켜 질문을 재구성하였다.

이 질문지의 하위영역별 문항 내용과 문항 번호,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표 III-2>에 제시되어 있다. 이 질문지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측정에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III-2> 부모의 양육효능감 질문지의 하위영역 문항번호

하위영역	문항내용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전반적인 양육 능력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과 관련된 문항	1, 6, 11, 16, 17, 18	.8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아동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문항	2, 7, 12	.74
의사소통 능력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아동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	3, 8, 13	.75
학습지도 능력	아동의 지적 학습과 관련된 문항	4, 9, 14	.81
훈육 능력	아동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과 관련된 문항	5, 10, 15	.81

이 질문지는 5단계 Likert식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이면 1점, “매우 그렇다” 이면 5점으로 이어지는 평정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질문지를 이용해 나올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8~90점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한 5단계 Likert 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얻은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4이고,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8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4, 의사소통 능력 .75, 학습지도 능력 .81, 그리고 훈육 능력 .81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2 (전반적인 양육능력 .8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61, 의사소통능력 .69, 학습지도 능력 .76, 훈육능력 .80)이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2(전반적인 양육능력 .8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63, 의사소통능력 .68, 학습지도 능력 .75, 훈육능력 .78) 였다.

나. 자아존중감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 Esteem Inventory)를 이현주(1990)가 아동용으로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척도로서, 그 내용은 일반적인 자아(25문항), 사회적 자아(8문항), 학교 자아(8문항), 가정 자아(8문항)의 4개 하위 요인을 포함하며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자아상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자아영역의 25문항만을 상미현(1998)이 부분 수정한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차경숙(1997)과 상미현(1988)의 연구에 따라서 5단계 Likert식 평정 척도를 4단계 Likert식 평정 척도로 수정한 4단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거의 그렇지 않다” 이면 1점, “매우 그렇다” 이면 4점으로 이어지는 평정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질문지를 이용해 나올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25~10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긍정적, 부정적 문항에 따른 각 문항번호 및 신뢰도

〈표 III-3〉 긍정적 문항, 부정적 문항의 문항번호 및 신뢰도 계수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계수
긍정문항	1, 3, 9, 12, 13, 16, 17, 18, 19	9	.78
부정문항	2, 4, 5, 6, 7, 8, 10, 11, 14, 15, 20, 21, 22, 23, 24, 25	16	

계수 Cronbach's α 는 <표 III 3>에 제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11.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부와 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과 학년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결과 분석

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부와 모에 따른 차이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 과 같다. 부의 양육효능감 평균은 3.81이며, 표준편차는 .50으로 나타났으며, 모양육효능감 평균은 3.88이며, 표준편차는 .50으로 나타나 높은 편이었다. 모의 양육효능감(M=3.88)이 부의 양육효능감(M=3.8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1>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기술 통계량

	<i>n</i>	<i>M</i>	<i>SD</i>	최소값	최대값
부	259	3.81	.57	1.00	5.00
모	259	3.88	.55	1.28	5.00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은 <표 IV-2> 와 같다.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을 하위영역별로 비교하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조금 높으나 다른 4개 하위 영역, 즉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에서는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와 모 사이에 양육효능감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능력

〈표 IV-2〉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

구분	하위영역	<i>n</i>	<i>M</i>	<i>SD</i>	최소값	최대값
부	전반적인 양육능력	259	3.70	.67	1.00	5.0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59	4.08	.70	1.00	5.00
	의사소통 능력	259	3.84	.66	1.00	5.00
	학습지도 능력	259	3.42	.81	1.00	5.00
	훈육 능력	259	4.16	.65	1.00	5.00
모	전반적인 양육능력	259	3.74	.65	1.50	5.0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59	4.05	.60	1.33	5.00
	의사소통 능력	259	4.02	.61	1.00	5.00
	학습지도 능력	259	3.55	.79	1.33	5.00
	훈육 능력	259	4.18	.64	1.00	5.00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3〉와 같다.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능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의사소통능력과 학습지도능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부와 모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부(n=259)	모(n=259)	t	p
	M(SD)	M(SD)		
전반적인 양육능력	3.70(.67)	3.74(.65)	-.946	.34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4.08(.70)	4.05(.60)	-.173	.863
의사소통 능력	3.84(.66)	4.02(.61)	4.43	.000***
학습지도 능력	3.42(.81)	3.55(.79)	-2.63	.009**
훈육 능력	4.16(.65)	4.18(.64)	-.584	.560

** $p < .01$, *** $p < .001$

나.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을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아동의 성에 따른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부와 모 모두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조금 높았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대한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이 조금 높았다.

한편 학년에 따른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이 중학생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보다 남녀 모두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IV-4〉 아동의 성과 학년과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

구분		부		모
		<i>n</i>	<i>M(SD)</i>	<i>M(SD)</i>
초등	남	64	3.87(.57)	3.90(.57)
	녀	72	3.88(.58)	3.92(.39)
중등	남	54	3.76(.60)	3.88(.66)
	녀	69	3.72(.54)	3.82(.58)

〈표 IV-5〉 아동의 성과 학년과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관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i>p</i>
		1.235	3	.412	1.264	.287
부의 양육효능감	학년	1.144	1	1.144	3.512	.062
	성	4.049E-03	1	4.049E-03	.012	.911
	학년 * 성	3.557E-02	1	3.557E-02	.109	.741
	오차	83.071	255	.326		
합계		3843.883	259			
		.407	3	.136	.450	.718
모의 양육효능감	학년	.258	1	.258	.856	.356
	성	1.513E-02	1	1.513E-02	.050	.823
	학년 * 성	.101	1	.101	.335	.563
	오차	76.793	255	.301		
합계		3976.478	259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부의 양육효능감은 유의확률이 .287(>0.05)로 부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모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718(>0.05)로 모의 양육효능감 역시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6>와 같다.

<표 IV-6>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

		<i>n</i>	<i>M</i>	<i>SD</i>	최소값	최대값
초등학생	남	64	2.91	.31	1.88	3.48
	녀	72	2.85	.36	1.80	3.84
	합	136	2.88	.34	1.80	3.84
중학생	남	54	2.83	.33	2.00	3.48
	녀	69	2.78	.31	1.92	3.48
	합	123	2.81	.32	1.92	3.48

초등학생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88이고 표준편차는 .34로 나타났으며, 남아(M=2.91)가 여아(M=2.8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81이고 표준편차는 .32로 나타났으며, 남아(M=2.83) 여아(M=2.7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88이고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173(>0.05)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7>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아동의 자아존중감	.544	3	.181	1.673	.173
학년	.349	1	.349	3.224	.074
성	.176	1	.176	1.622	.204
학년 * 성	6.857E-04	1	6.857E-04	.006	.937
오차	27.637	255	.108		
합계	3103.826	259			

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성과 학년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8>, <표 IV-9> 과 같다.

먼저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r=.345, p<.001$)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구분		부모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남	부모의 양육효능감	1.000	.149
	아동의 자아존중감	.149	1.000
여	부모의 양육효능감	1.000	.345***
	아동의 자아존중감	.345***	1.000

*** $p < .001$

〈표 IV-9〉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학년별		부모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초등	부모의 양육효능감	1.000	.210*
	아동의 자아존중감	.210*	1.000
중등	부모의 양육효능감	1.000	.279***
	아동의 자아존중감	.279***	1.000

* $p < .05$, *** $p < .001$

한편,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10$, $p<.05$)가 있었다. 또 중학생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79$, $p<.001$)가 있었다. 즉,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2.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그 부모를 대상으로 부와 모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와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라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부와 모에 따른 차이

부와 모 사이에 양육효능감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에 따른 하위 영역별 양육효능감은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능력에서는 부와 모가 비슷하나, 의사소통능력에서는 어머니가, 학습지도능력에서는 아버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부의 양육효능감($M=3.81$)보다 모의 양육효능감($M=3.88$)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은 5점 척도의 질문에서 평균이 4점이 넘는 것도 있어 전반적으로 양육효능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을 하위영역별로 비교하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조금 높으나 다른 4개 하위 영역, 즉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에서는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최형성의 연구(2002)와 거의 일치한다. 최형성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 수준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은 높은 편이었다. 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들이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해 보면 최형성의 연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4~5세의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다르다. 최형성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4, 5세 유아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연구한 이승미(2004)에 따르면 경제지위 상 집단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59로, 경제지위 하 집단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33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들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훈육능력에 대해 높게 보고하였고, 전반적인 양육 능력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보고하였다(이승미, 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는 몇 편이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한 선행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로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과 더 다양한 학년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없었으나, 초등학생 부와 모는 남아보다 여아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나, 중학생 부와 모는 여아보다 남아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더 높았다. 또 초등학생 부와 모가 중학생 부와 모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부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아

동의 성과 학년에 따른 모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모의 양육효능감 역시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은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와 모 모두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대한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대한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이 중학생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보다 남녀 모두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숙재(1997)의 연구와 안지영(2001)의 연구, 최기원(2004)의 연구에서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혜인(2003)의 연구, 또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전은영(2004)의 연구와는 다르다. 전은영(2004)과 정혜인(2003)은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희정과 이숙(1994)은 성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나 양육 행동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어머니관련 변인의 영향력에 따라 여아의 경우 남아들보다 어머니 변인들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녀간의 간접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와 관련 연구를 살펴볼 때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연구하였으며,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아동의 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에 대해 논의해 보면 초등학생 부모들(3.89)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최형성의 연구(2002)와 비슷하다. 최형성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73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최형성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만 4~5세의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이승미(2004)연구와는 다르다. 이승미(2004)에 따르면 경제지위 상 집단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59로, 경제지위 하 집단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33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Floyd, Gillion과 Costinggan(1998)이 개발한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여 2~3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안지영(2001)은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1~4점의 가능한 범위 중 평균 2.50(SD=0.33)으로 보통 정도로 라고 보고 있으며, 안지영(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4~6세의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들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2.68(김은영, 2005), 2.57(남덕임, 2004), 2.63(정혜인, 2003), 2.65(김현미, 2004)으로 나타나있다.

한편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가지 문항으로 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변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숙재(1997)는 어머니들의 부모 효능감 평균을 남아 31.69, 여아 31.37로 보고하고 있으며, 신숙재의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민정 외(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 효능감 평균이 33.19로,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3~6학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서현(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 평균이 29.00~30.63으

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학년에 증가함에 따라 높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유아의 양육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선행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이유는 현대에는 핵가족 사회에서 각 가정이 한 명 내지 두 명의 아동만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아동의 성과 학년을 가리지 않고 아동 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아동의 성과 관련이 없고, 아동의 성에 따라 훈육 태도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 성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먼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남아(M=2.88)가 여아(M=2.82)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이러한 결과는 차경숙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차경숙, 1997).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강윤숙, 1987; Maccoby & Jacklin, 1974; Rowe, 1981; 차경숙, 1997에서 재인용). 또 Harter(1982)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며, 또한 Kurdek과 Krile(1982)의 3~8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미란, 2002). 그러나, Stigler, Smith와 Mao(1985)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능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아 가치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이임현(1999)이 정리한 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Coleman은 횡단적 연구에서 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Brown, Fullkerson, Ware와 Voight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연구의 결과에서도 어욱자(2003)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고, 김치영(1987)과 이진화(1993)는 남아가 신체적 역량에서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의 자아개념을 조사한 심영현(1981)과 4~6세 유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Wiseman과 Adams의 자아개념 그림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정숙자(1984)의 연구 결과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보였다. 그러나 3~5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민주(199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미란(2002)은 아동의 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비슷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자아존중감과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차경숙(1997)은 이러한 결과를 아동의 수가 2명이 63.5%로 최빈치, 두 명 이하가 80.6%를 차지하고 있는 바, 각 가정의 아동수가 적어짐에 따라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까

남은 남아와 여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남아와 여아가 받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최명희(2004)의 설명과 남녀 아동들이 오늘날의 대중 사회 속에서 거의 같은 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88이고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81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 2,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Benson과 Dweck(1986)의 연구 결과에서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평가는 덜 긍정적이 되며 Simmons와 Rosenberg(1973)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청소년 초기의 학생들이 다른 학년층에 비해서 더 우울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자존감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 Nottleman(1987), Wigfield 등(1991), Eccle 등(1989)의 연구에서도 6학년에서 7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사회적 능력 및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Piers와 Harris는 6학년에서 다소 낮아진 다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며,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연구한 McCarthy와 Hore의 연구, 13세에서 23세까지를 조사한 O'Mally와 Bachman의 연구에서는 학년의 증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계속 증가 현상을 보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에서 양복순(1999)은 유아기,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김미란(2002)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로 아동기, 성인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혼란스럽고 변화가 많을 것이라 보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순지의 연구(1990)에서도 어린 아동일수록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 초등학교 3, 6,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진화(1993)의 연구 전반적인 자아 가치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지각한다. 또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비교 연구한 전지환(2005)에 따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4학년 아동들이 6학년 아동들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희(2004)는 지금까지 제시된 아동의 학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없거나 차츰 낮아졌다가 중학교 1학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자아존중감이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까닭은 연구 대상자들이 부산의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생들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비교적 안정된 가정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는 보고된 것이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더 다양한 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성과 학년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은영(2004)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전은영(2004)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 어머니의 유아가 낮은 어머니의 유아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김은영(2005)의 연구에 따르면 양육 효능감이 과잉 반응적 훈육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며, 김현주, 손은경, 신혜영(2003)에 의하면 아동을 수용적으로 대하고 온정과 애정

을 쏟으며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친밀성을 형성하는 부모의 아동들이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리라고 추정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서민정, 2002; 신숙재, 1997; 양정화, 2002; 최형성, 2002),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이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양정화, 2001)는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으리라 추정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다. 양육효능감은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며, 아동발달과 양육행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는 양육의 중요 시기와 아동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아동을 둔 부모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아동 259명과 그 부모 각각 2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최형성(2002)이 개발하고, 이승미(2004)가 재구성하여 18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Inventory)를 이현주(1990)가 아동용으로 번안한 것을 일반적인 자아영역의 25문항만 사용하였으며, 차경숙(1997)과 상미현(1988)의 연구에 따라서 5단계 Likert식 평정 척도를 4단계 Likert식 평정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자료는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 t-검증과 이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다섯 개 하위 영역 가운데 두 개의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부모의 양육효능감보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먼저 부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의 양육효능감 역시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었다. 한편,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중학생의 경우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학년에 따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첫째, 부의 모의 양육효능감은 하위 영역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둘째,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 넷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역의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 학교의 규

모나 환경적인 배경에 따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부모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폭 넓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에 대한 제한 즉,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각 하위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수가 적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다양한 척도를 개발하여야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각 개인의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하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의 성격 특성 등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과의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동의 전반적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민주(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주(2003). **초등학교 영재아동 및 일반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희(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란(2004). **초등학교 아동들의 진로인식 수준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5).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훈육방식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은, 정옥분(1999). “아동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아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0(4), 179-193.
-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2).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200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2005).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아동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 김경연(1993). 아동의 자아존중감 : 구성영역과 발달, 아동학회지, 14(1), 129-139.
- 남덕임(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정도와의 관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진아(2003).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과 직업 변인에 따른 양육 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49-62.
- 문혁준(2001).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2(1), 35-49.
- 박병선(2003). 중학생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 및 가정 특성변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자(2001). 아동이 지각한 교사 행동과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의 관계,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애, 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7(1), 189-212.
- 박윤미(2001). 취업주부의 아동양육스트레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옥(2003).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상미현(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 선행변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200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 정서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8(1), 69-81.
-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 아동양육행동 매개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석난자(2002). **자기표현훈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경(2002). **어머니의 훈육방식에 따른 다운증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화희(1989).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신혜영(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현(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법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복순(1999). 반편견 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조망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화(2002). 남편의 협력과 어머니 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옥자(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윤은미(2005).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호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랑(2003). 아동 양육 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 - 아동기 아동을 둔 부모를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및 아동 성취에 대한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0). 어머니가 인지한 아동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1993). 학년, 성,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승(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과의 관계 : 재미동포 한인 1세대 부모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3), 57-71.
- 전영선(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영(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환(200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지(1990). 지능에 대한 개념 및 자아능력 지각과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 : 유치원과 국민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화(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의 관계, 인문과학논총 제3집, 273-294.
- 정혜인(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승(1997).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아동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경숙(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원(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희(2004). 방과후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86).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Bandura, A.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Albe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lock, J. & Robins. R. W.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1, 909-923
- Cohen, Jody. (1996). *Girls in the middle working to succeed in school*. ERIC.
- Kernis. (1995).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Michael Howard Plenum Press.
- Luebering.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Self-Efficacy and Childrearing Beliefs among First Time Mothers of Infants*. Anne
- Maddux. (1995).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James E Plenum Press
- Mash, E. J., & Johnston, C. (1983).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pp. 86-99
- Pajares. (1995). *Self Efficacy in Academic Settings*. Frank.

Pajares. (1995).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in the Writing Performance of Entering High School Students : A Path Analysis*. Frank.

Yuhis. (1996). *The Effect of Classroom Techniques on the Self-Esteem of Secondary Learning Disabled Students*. Patricia.

부 록

1. 부모의 양육효능감 측정 척도
2. 아동의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

부모의 양육효능감 설문지

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아동을 양육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바쁘시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부모님들이 아동 양육할 때 생각하고 느끼는 점에 대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이름을 적지 않으셔도 되며, 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니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답해 주신 귀한 의견은 아동을 양육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아보는 데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질문지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부모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질문지에 표시해 주세요. 질문지에 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5년 3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전공 문종길 드림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의 아버지

	진히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3.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4. 나는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5.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6.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7. 나는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8.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9. 나는 아이가 성적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10.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1. 나는 다른 부모에게 아동 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2. 나는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13. 나는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14.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5. 나는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6.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17.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8.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3.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4. 나는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5.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6.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7. 나는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8.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9. 나는 아이가 성적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10.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1. 나는 다른 부모에게 아동 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2. 나는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13. 나는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14.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5. 나는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6.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17.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8.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학생 여러분의 특성을 연구하여 더 나은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학교, 친구, 부모님에게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답한 하나 하나의 문항은 아주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면 애써 대답한 설문지가 못쓰게 되므로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평소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설문지에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어 고맙습니다.

♣ 응답요령

- ①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십시오.
- ② 의문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2005년 3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문 종 길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성 : 남 _____ 여 _____

질 문	시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든 일에 걱정하지 않는다.				
2. 만일 가능하다면 나 자신에 대해 고치고 싶은 면이 아주 많다.				
3. 나는 큰 망설임 없이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다.				
4. 내가 새로운 일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5. 나는 매우 쉽게 양보한다.				
6. 나의 생활은 운동 뒤죽박죽이다.				
7. 나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대부분의 사람처럼 잘 생기지 못했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이다.				
10. 나는 종종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믿음만한 사람이 못된다.				
12.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13. 나는 많은 시간을 공상을 하면서 보낸다.				
14. 나는 좀 더 어렸으면 좋겠다.				
15. 누군가가 항상 나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어야만 한다.				
16. 나는 대체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17. 나는 참 행복하다.				
18.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19. 나는 결심한 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20. 나는 내가 남자 혹은 여자인 것이 정말로 싫다.				
21. 나는 종종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				
22. 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23.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24. 나는 야단을 맞으면 쉽게 기분이 상한다.				
25. 나는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				